

‘슬기로운 킬러’...수비수가 읽힌대요

정훈재의 사커 에세이 | U-20 여자월드컵 대표팀 장슬기의 도전

4년전 언니들에 밀려 수비수였던 막내 작년 U-19선수권 8골 득점왕 우뚝 이제는 캡틴 완장 차고 대표팀 해결사 팀 위해 포지션 또 바뀌도 괜찮습니다 캡틴 장슬기, 월드컵 6골 기대할게요

월드컵이 독일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기쁨보다는 슬픔을 안겨준 대회였지만, 세계축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돌아보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남아공에선 우리 대표팀이 탈락한 뒤에도 현지에 남아 그동안 농쳤던 다른 팀들의 경기 도 보고 관광도 하면서 결승전을 기다렸지만, 이번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달 캐나다에서 열리는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을 앞두고 소집훈련에 들어간 한국대표팀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목포로 떠났습니다. 우리나라는 4년 전 독일대회에서 지소연 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3위에 올랐고, 같은 해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린 17세 이하 여자월드컵에선 우승컵과 함께 골든볼, 골든슈를 싹쓸이한 여민지 선수가 스타로 떠올랐죠. 바로 그 대회에서 일본과의 결승전 승부차기 마지막 킥을 성공시켰던 장슬기 선수가 어느덧 성장해 주장 완장을 차고 이번 대회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장슬기 선수는 본명 오른쪽 골백이었는데, 작년에 열린 아시아 U-19 여자선수권대회에서 8골을 넣어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4년 전 트리니다드토바고로 떠나기 전에 인터뷰했던 최덕주 감독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소년 레벨에선 각 소속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격수들이 대표팀에 모이는 경향이 있답니다. 당시 U-17 대표팀에는 여민지라는 세계정상급 스트라이커가 있었기 때문에, 막내였던 장슬기 선수는 공격수임에도 수비수로 변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축구선수였던 아버지와 오빠를 따라 초등학교 때 축구를 시작한 장슬기 선수는 처음에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낙천적 성격 덕분인지 운동에 집중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년 전 일본에서 열린 U-20 여자월드컵에선 왼쪽 골백으로 출전했고, 예선에선 중앙수비까지 뛴다고 하네요. 수비진의 여러 포지션을 두루 거친 장슬기 선수는 이제 상대 수비수의 움직임을 미리 읽을 수 있는 ‘슬기로운 공격수’로 탈바

꿈했습니다.

여자 앞에서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인터뷰 도중에는 차마 입밖에 꺼내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군대스리가’에서 뛰어본 경험을 들여다보면 포지션은 늘 계급 순으로 정해지곤 했습니다. 병장은 포워드, 상병은 미드필더, 일등병은 수비수, 이등병은 골키퍼 또는 볼보이, 이런 식이죠. 간혹 특별한 재능이 있는 신병이 자대배치를 받아 공격진에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기도 하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 그날 밤 내무반에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단순 무식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랭킹 포메이션’은 계급에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어찌된 자연스러운 진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축구에선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골을 넣어야 하고, 골을 넣으려면 좋은 공격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격수들의 몸값이 가장 비싸고,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격수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골(goal)’은 말 그대로 목표일 뿐, 경기 자체가 될 수는 없죠. 공이 수비진에서 미드필드를 거쳐 전방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없으면 골도 나올 수 없습니다. 축구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슬기 선수는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다시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두 번의 변신을 거쳐 아시아 최고의 골잡이로 성장했습니다. 내친 김에 혹시 미드필더 역할에 도전해볼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게 팀을 위해 ‘청천쌍(정성천 감독)’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라면 따르겠지만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이미 중앙에는 이소담 선수처럼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서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 겸손합니다.

그럼 장슬기 선수는 캐나다에서 몇 골을 넣는 게 목표일까요? 아시아에서 여덟 골을 넣었으니까 월드컵에선 대어섯 골만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겸손합니다.



●정훈재는?

FIFA.COM 에디터. 2002한일월드컵에서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 안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축구와 깊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이후 UEFA.COM 에디터를 거쳐며 축구를 종교처럼 생각하고 있다. 2014브라질월드컵에는 월드컵 주관방송사인 HBS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국제축구의 핵심조직 에디터로 활동하며 세계축구의 흐름을 꿰고 있다.



장슬기는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다시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2번의 변신을 거쳐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성장했다. 다음달 캐나다에서 열리는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에서도 한국의 주전 골잡이로 나선다. 스포츠동아DB



남자농구대표팀 김주성(오른쪽)과 김종규(왼쪽)가 15일 뉴질랜드 웰링턴 TSB뱅크 아레나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1차 평가전에서 상대 선수들과 리바운드를 다투고 있다. 웰링턴(뉴질랜드) | 사진공동취재단

“편하게만 경기하려는 ‘왕자 농구’ 미래 없다”

유재학 감독 뉴질랜드 1차 평가전후 일침
김주성도 “어린 선수들 편한 농구에 익숙”

“왕자농구”에 안주한다면 한국농구의 미래는 없다.”

남자농구대표팀 유재학(51·모비스) 감독과 2002부산 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인 김주성(35·동부)이 한국농구를 이끌어갈 차세대 주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들이 ‘국내용’에 머문다면 더 이상 한국농구의 발전은 없다는, 진심어린 충고다.

유 감독은 뉴질랜드대표팀과의 2차 평가전을 위해 웰링턴에서 타우랑가로 이동한 16일(한국시간), 하루 전 1차 평가전에서 제대로 된 몸싸움을 펼치지 못한 젊은 대학선수들을 떠올리며 “국내에서 너무 편하게 ‘왕자농구’를 하다보니, 뉴질랜드 같은 좋은 팀과 만나서 게임을 하면 선수도 아닌 모습을 보이게 된다. 농구는 살을 부딪치면서 하는 게임이다. 몸싸움도 하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는 게 농구다. 낯은일도 하지 않고, 국내에서 너무 편하게 농구를 해서 그렇다. 좋은 젊은 선수들이 ‘왕자농구’에 머문다면 앞으로 한국농구의 발전을 이끌 수 없다. 뉴질랜드전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14명의 대표선수 중에는 대학생으로 이승현(22)이 종현(20·이상 고려대), 최준용(20·연세대) 등 3명이 포함돼 있다. 유 감독의 ‘왕자농구’ 지적은 이들뿐 아니라 프로에 몸담은지 얼마 되지 않은 김종규(23·LG)를 비롯한 젊은 선수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 감독은 “1차 평가전에서 김주성이 후반 들어 슬라이딩도 해 볼을 빼앗으면서 후배들에게 자극을 줬고, 그렇게 고참이 술선수범하자 후배들도 변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문태종(39·LG)에 이어 대표팀에서 2번째로 나이가 많은 김주성 역시 “후배들이 편하게 농구를 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그동안 진천훈련 때는 쓴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 1차전이 끝난 뒤에는 후배들에게 쓴 소리도 좀 했다”며 “유 감독님 말씀처럼, 어린 선수들이 너무 편하게 농구를 해서 앞으로 발전이 없다. 나도 앞으로 더 모범을 보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 대표팀에서 유일한 부산아시안게임 금메달 멤버인 그는 “부산에서 처음 우승한 것처럼 이번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도 다시 우승하고 싶다. 금메달로 마무리 짓고 싶다”며 사실상 대표팀 마지막 해인 올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꼭 따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타우랑가(뉴질랜드)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www.woodeolgk.com

아이스 컵도너츠가 창업대세!!

정통 아메리칸 도너츠, 아이스크림의 시원함과 달콤함이 하나로!

골리먹는 재미의 8가지 다양한 맛

아이스 컵도너츠

주문 관리만 하면 되는 간단업무
980만원 창업으로 20군데의 매장 운영효과!!
본사에서 판매점 섭외, 판촉 홍보물 등 영업 환경 지원

요즘 커피숍, 편의점, PC방, 마트, 학교/병원 매점 등에서 인기 폭발 아이스 컵도너츠 주문새도

- ✓ 아이스크림과 도너츠의 장점이 하나로 아이스 컵도너츠!!
- ✓ 정통 아메리칸 도너츠의 맛과 8가지 맛의 구성으로 고객 만족!!
- ✓ 부담없는 가격으로 아이들 및 남녀노소 모두의 간식 해결사!!
- ✓ 20곳의 판매처와 냉동고, 각종 홍보물 지원 지역 독점권 부여!!
- ✓ 판매처가 다양하고 판매처 추가 확보가 용이해 쉬운 수익 증가!!
- ✓ 특별한 시간 투자없이 주문 관리만 하면 되므로 직장인의 투잡, 주부 부업으로도 안정맞춤인 사업!!

문의 02)2038-7665